음악·춤으로 … 순국 선열 향한 헌사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심포니송오케스트라·빛고을댄서스
'못 잊어'·'침묵의 열매' 등
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의 공연 장면. 〈광주시립합창단 제공〉

빛고을 댄서스

호국보훈의 달 6월이 되면 숭고한 희생과 전쟁의 아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염원을 생각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값진 '선물'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연주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합창단은 제193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22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개최한다. 주제는 '선물'.

이번 정기연주회는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을 '선물'에 초점을 맞추고 풀어낸다.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와 빛고을댄서스가 함께하며, 광주시립합창단만의 특별한 공연으로 꾸며진다.

1부는 '침묵의 열매'와 '기도, 우리의 눈을 여소서'로 막을 연다. 마더 테레사 수녀 '평화를 위한 기도'를 라트비아 출신 음악가 바스크스가 작곡한 작품으로 인류를 사랑으로 보듬는 마음이 담겨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함께 살아가는 이의 조건 없는 연합과 공존을 기원한다. 현악 앙상블 특유의 부드러운 흐름은 잔잔한 울림을 선사한다.

이어지는 곡은 '못 잊어'. 향토적인 서정시인 김소월 시 '못 잊어'를 작곡가 조혜영이 편곡했다. 아쉬움과 그리움의 기억을 때로는 하소연하듯, 때로는 절규하듯 쏟아낸 작품이다.

코소보 사태의 참상에서 모티브를 얻어 작곡자 칼 젠킨스가 작곡한 곡인 'Kyrie & Benedictus'는 감미로우면서 비장하고 장중한 음색으로 영혼을 숙연하게 한다. 끝없는 사랑으로 가득한 평화와 축복을 노래하며 1부를 마무리한다.

2부에선 김동환 시의 봄날의 풍경을 묘사한 곡인 '바람은 남풍'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만들라는 내용이 담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돼라'가 여성합창으로 불린다. 이어지는 남성합창은 나폴리 민요를 밝고 활기 넘치게 편곡된 작품인 '푸니쿨리, 푸니쿨라', '스페인 아가씨', 바퀴벌레의 움직임을 마치 병정들이 줄지어 행진하는 것처럼 비유한 코믹하고도 흥겨운 음악인 '라 쿠카라차'가 연주된다.

마지막으로 펼쳐지는 작품은 '그리스'. 지난 2022년 한차례 공연을 한 이후, 한 번 더 공연에 올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 앙코르 공연의 의미로 올리는 작품이다. 이번 연주에서는 초반 음원을 사용하고, 요즘 뜨겁게 부상하는 스트리트댄서 스타일의 빛고을댄서스가 협연한다.

한편 광주시립합창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위로와 희망을 주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염원을 담아 준비했다"며 "정기연주회 주제가 '선물'인 만큼, 시립합창단의 격조 높고 품격 있는 무대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스트레이 키즈, BTS와 나란히

'파이브스타' 빌보드200 세번째 1위…美서 최다 판매 앨범

그룹 '스트레이 키즈'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세 번째 1위를 기록했다.

빌보드는 12일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스트레이 키즈의 정규 3집 '★★★★★'(파이브스타)가 테일러 스위프트와 모건 월렌 등을 제치고 1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이 키즈는 이로써 지난해 '오디너리'와 '맥시던트'에 이어 이 차트에서 세 번째로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 200'에서 3회 이상 1위를 기록한 K팝 그룹은 이들 외에는 방탄소년단(BTS)뿐이다.

스트레이 키즈 '파이브스타'는 24만9500장에 해당하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를 합산해 앨범 소비량 순위를 산정한다.

이 가운데 CD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은 23만5000장으로 올해 미국에서 한 주간 가장 많이 팔린 음반으로 기록됐다. 또 이는 지난해 테일러 스위프트의 '미드나잇츠'가 기록한 114만장 이래 최다 판매량이기도 하다고 빌보드는 전했다.

SEA는 1만4000이었고, TEA는 500이었다.

첫 주 미국 판매량의 98%에 해당하는 23만1000장은 CD 판매에서 나왔다. 디지털 앨범 판매량은 약 4000장으로 2%를 차지했다.

'파이브스타'에는 멤버 방찬, 창빈, 한이 직접 프로듀싱한 타이틀곡 '특'을 비롯해 '위인전', '아이템', '슈퍼볼', '탑라인'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 12곡이 수록됐다.

스트레이 키즈 3집은 선주문량 513만장과 한터차트 기준 첫 주 판매량 461만장을 각각 기록해 두 부문에서 모두 K팝 사상 신기록을 썼다. /연합뉴스

전남대 올해의 책 '아버지의 해방일지'

구례 출신 정지아 작가 장편…3일간의 시간 속 70년 현대사 담아

구례 출신 정지아〈사진〉 소설가의 장편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전직 빨치산' 아버지의 죽음을 모티브로 펼쳐지는 작품이다. 작가는 3일간의 시간 속에 드리워진 우리의 70년 현대사 굴곡에 초점을 맞춘다. 웅장하면서도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무거움을 다소 무화시키는 '가벼움'이 드리워져 있어 읽는 맛을 선사한다.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전남대 2023년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지난 5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 온·오프라인 시도민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전남대 도서관(관장 장우권)은 지난 3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 책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도서 5권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의 한 책'과 함께 추천한 동반 도서는 곽재식 작가의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를 비롯해 김상현 작가의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우춘희 작가의 '깻잎 투쟁기', 최광현 작가의 '가족 공부'로 총 4권이다.

이후 도서관은 '올해의 한 책'을 중심으로 작가 초청 톡 콘서트, 한 책 도서교환전, 테마도서전시회, 독서후기 공모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장우권 도서관 관장은 "책과 독서 등을 매개로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AI 음악, 창작일까 저작권 침해일까

인간 외 주체 저작권 인정 안 돼…학습 과정 논란 첨예

원숭이가 찍은 '셀카'의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을까? 코끼리가 그린 그림은?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여겨졌던 '인간 외 존재의 저작권'에 대한 질문이 최근 문화예술 종사자들 사이에서 묵직한 쟁점이 됐다. 이번엔 동물이 아닌 인공지능(AI)의 창작물이 문학, 미술, 음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오면서다.

K팝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AI 작곡가의 노래를 가수가 불러 발매하고, 나아가 노래를 부를 가수 없이도 AI가 합성한 목소리로 새로운 노래가 탄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신기술을 시장의 건강한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AI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관리 방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인공지능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당초 노래의 저작권자로 등록됐던 작곡 AI가 뒤늦게 저작권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발생했다.

AI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앞서 AI의 창작물이 기존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에 대한 K팝 시장의 수요는 이미 높다.

이미 작곡과 프로듀싱 과정의 분업화 및 디지털화가 이뤄진 K팝 산업의 특성상 AI를 활용하면 그 생산성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규탁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는 "창작 방식은 다양하고 복잡해졌는데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 변화에 맞게 저작권의 개념을 새로 정립하고 AI가 참여한 창작물에 대해 어디까지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